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5957호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일본 유제품기업 오하요유업 "한국, 핵심시장" L1

코오롱티슈진 임상 3상 실패 10월 반전 기대 L2

검색창 넘어 AI로… 데이터·전력·자본 엮어 미래 설계한다

CEO 와칭

이 해 진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지난달 8일 경기 성남 네이버1784 사옥에서 열린 미디어 스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해진 창업자 프로필

1967년 서울 출생
서울대 전자계산기공학과 학사
KAIST 전산학 석사

1992년 삼성SDS 입사, 검색엔진 개발 프로젝트
1999년 네이버 창업자, 대표이사 사장
2001년 엔에이치엔(NHN) 공동대표이사 사장
2004년 엔에이치엔 최고전략책임자, 이사회 의장
2007년 엔에이치엔 Japan 이사
2012년 엔에이치엔 Japan 회장
2013년 라인(LINE) 회장, 네이버 이사회 의장
2017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2025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네이버 창업자, 최근 경영 전면에 복귀
AI시대 대비… 글로벌 협력 구축 나서
지난달, 젠슨황과 만나 AI 협력 논의
AI 기반 대화형 검색 등 서비스 구체화

소프트웨어만으로 AI 경쟁력 부족해
컴퓨팅 자원·전력 인프라 확보 중요
장기 투자, 해외 파트너십 구축해야
향후 10년 좌우할 미래 전략에 집중

검색으로 기업을 키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AI 시대를 맞아 다시 경영 전면에 섰다. 서비스 혁신을 넘어 AI 인프라와 글로벌 협력까지 직접 챙기며 네이버의 다음 10년을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IT업계에 따르면 올해 약 7년 만에 네이버 이사회에 복귀한 이 창업자는 최근 AI 관련 글로벌 협력 확대에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과 만나 AI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최근에는 글로벌 대체자산 운용사 브룩필드 본사 방문 가능성도 제기됐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행보를 단순한 대외 일정이 아니라 AI 시대를 대비한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AI 경쟁의 무게중심이 서비스에서 데이터센터와 GPU, 전력 확보 등 인프라 경쟁으로 이동하면서 창업자가 직접 글로벌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창업자의 경영 행보는 과거와도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과거 네이버가 검색과 블로그, 카페, 지식iN 등을 앞세워 국내 플랫폼 시장을 키울 당시 이 창업자의 역할은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고 플랫폼 생태계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생성형 AI 시대에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AI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자원, 막대한 전력 인프라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이 창업자의 역할도 바꾸고 있다. 네이버가 AI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최수연 대표가 사업과 서비스 실행을 총괄한다면, 이 창업자는 장기 투자와 기술 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큰 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네이버의 AI 전략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검색 서비스 'AI 탭'을 출시한 데 이어 쇼핑과 부동산, 건강 등 분야별 AI 에이전트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넘어 이용자의 예약과 구매, 정보 탐색 등 실제 행동까지 지원하는 AI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AI 경쟁은 서비스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초거대언어모델(LLM)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GPU와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능력이 필요하다. AI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연산 자원도 함께 확대돼야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퉈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메타는 수십조원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도 데이터센터와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AI 경쟁이 모델 성능을 넘어 인프라 확보 경쟁으로 확산되면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자체가 기업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것도 민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AI 인프라 수요를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다. 네이버 역시 AI 팩토리 구축과 데이터센터 확대 등을 미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AI 기반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창업자가 AI 인프라 확보를 직접 챙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다.

AI 시대에는 기술만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인 투자와 글로벌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시대 창업자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면 AI 시대 창업자는 기술과 자본, 글로벌 파트너를 연결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며 "최근 이 창업자의 행보 역시 네이버의 장기 AI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AI 경쟁은 단기간에 끝나는 승부가 아니라 향후 10년을 좌우할 인프라 경쟁"이라며 "창업자가 직접 글로벌 협력을 챙기는 것은 그만큼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1999년 네이버를 창업한 이 창업자는 국내 검색 시장을 개척하며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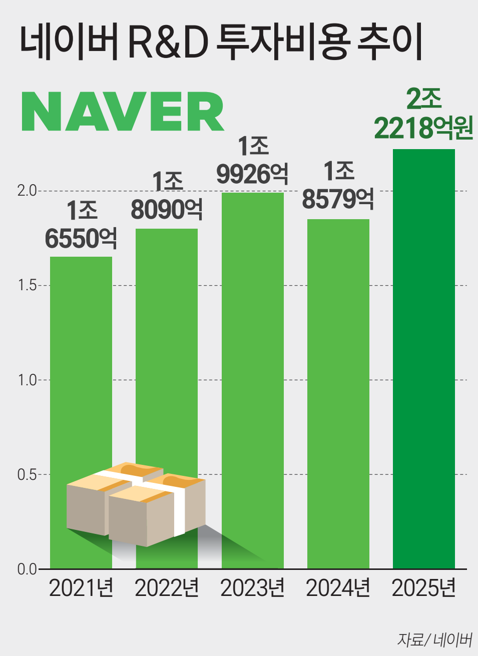
그러나 AI 시대 들어 그의 역할은 다시 변화하고 있다. 검색 서비스를 만드는 창업자에서 AI 인프라와 글로벌 협력 체계를 설계하는 전략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AI 시대 네이버의 경쟁력은 AI 서비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자원, 글로벌 기술 협력, 장기 투자 전략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업계가 최근 이 창업자의 행보를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네이버가 AI 시대에도 국내 대표 플랫폼의 지위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창업자의 시선이 더 이상 검색창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AI 시대 그의 무대는 서비스가 아니라 인프라와 투자, 그리고 글로벌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젠슨황(왼쪽) 엔비디아 CEO가 지난달 8일 경기 성남 네이버1784 사옥을 방문해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웹툰에 자막을 넣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메트로 한줄뉴스

▲농구 로챔스리그 출전 방식 확정…EASL 성적으로 출전권 획득
▲이정후, 두 경기 연속 안타…샌프란시스코는 허무한 끝내기 패배

/사진 뉴시스

▲FIFA, 스페인-아르헨티나 '난투극' 조사… 징계·윤리 검찰관 임명
▲중앙대, 3개국 어린이 함께한 '코린코'로 국제 단편영화제 진출

▲박나래 협박한 전 매니저 구속 송치…공갈미수 혐의
▲바둑 신진서, 최종국서 AI 카타고 제압…2승1패 '역전승'